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육학 석사 학위 논문

영어과 교육실습에 관한
예비교사의 인식조사



2013년 2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박혜숙

교육학석사학위논문

영어과 교육실습에 관한
예비교사의 인식조사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박혜숙

박혜숙의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3년 2월



주 심 영어교육학박사 오 준 일 (인)

위 원 영문학박사 송 호 림 (인)

위 원 교육학박사 조 윤 경 (인)

목 차

ABSTRACT	i
I. 서 론	1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2 연구 과제	3
1.3 연구의 제한점	3
II. 이론적 배경	4
2.1 중등영어교사의 자질	4
2.2 교육실습의 의의와 목적	6
2.3 교육실습의 주요 내용	7
2.4 선행 연구 분석	10
III. 연구 내용 및 방법	13
3.1 연구 참여자	13
3.2 연구 도구	14
3.2.1 설문지	15
3.2.1 면담	16
3.3 연구 절차	17
3.4 자료 분석 방법	18

IV. 결과 및 논의	19
4.1 전체적 교육실습에 대한 실태	24
4.2 영어교과 교육실습생의 수업에 대한 인식	27
4.3 영어교과 수업실습의 개선방안	40
IV. 결론 및 제언	45
참고문헌	47
부록	50
1. 영어교과 교육실습에 관한 설문지	50



표 목 차

<표 1> 참여 실습 학교	13
<표 2> 설문지 문항구성	15
<표 3> 면담 대상자 정보	16
<표 4> 면담 내용 구성	16
<표 5> 연구 절차 및 기간	18
<표 6> 지도교사의 수업참관 횟수	19
<표 7> 지도교사의 수업참관에 대한 인식	20
<표 8> 동료 실습생의 수업참관 횟수	21
<표 9> 동료 교육실습생의 수업참관에 대한 인식	22
<표 10> 실습생의 수업 시연 횟수	23
<표 11> 수업시연기회 제공이 적절하였는지에 대한 인식	24
<표 12> 실습기간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	25
<표 13> 학교에 배정된 실습생 수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	26
<표 14> 영어수업 시연에 대한 만족도	27
<표 15> 영어수업 시연의 불만족 이유	28
<표 16> 수업방식에 대한 분석	29
<표 17> 수업에서 영어사용 정도에 대한 인식	30
<표 18> 흥미로운 수업이 되기 위한 노력 정도	31
<표 19> 질문을 통하여 학습자의 수준을 인식한 정도	32
<표 20> 영어수업 성패 관련 요소 인식	33
<표 21> 집단별 영어수업 성패 관련 요소 인식	35
<표 22> 수업시연 후 협의 여부	35

<표 23> 영어수업 협의 만족도	36
<표 24> 수업협의를에 대한 불만족 이유	36
<표 25> 현장에 투입되어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준비정도	38
<표 26> 영어를 가르칠 준비가 되지 않은 이유	39
<표 27>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주 당 수업 참관 횟수	40
<표 28>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주 당 수업 시연 횟수	41
<표 29> 실습학교에 바라는 강좌나 요구사항에 대한 분석	42
<표 20> 영어과 수업실습 진행시 제약점 분석	43
<표 31> 교육대학원의 교육과정에 바라는 강좌나 요구사항	44



Perceptions of Pre-Service English Teachers
on English Teaching Practicum

Park, Hye-sook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rough the analysis of a pre-service teacher survey, the current condition of teaching practicum and the perceptions of pre-service teachers after the practice, and furthermore discover the ideal directions of English teaching at schools.

Through the questionnaire, the researcher collected data from 62 students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who completed their practicum in 2010.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twenty-two multiple choice questions, four short-answer questions, and one opened question. In-depth interviews were carried out to three of them. The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pre-service teachers' confidence was low due to uncertainty on their English abilitie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and the practical substitute school have to prepare programs that will enable pre-service teachers to enhance their English speaking abilities and confidences.

Second,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in middle school and in high school's teaching practicum systems. The pre-service teachers in high schools were rarely able to demonstrate English classes. It seems

that English teaching practicum should be developed and standardized for pre-service teachers so that they can have an opportunity to teaching practice equally.

Third, the restrictions in English teaching practice were appeared as a lack of fluent English speaking ability and handling skills of class English, the difficulties in controlling the students. The curriculum for pre-service English teacher should be connected to the actual school setting so that they can fully understand the actual education of English.

Finally, to improve the condition of English teaching practicum, the opportunities of sitting-in and pre-service demonstration of English classes, as well as proper guidance and feedback need to be expanded. Also, programs in regard to English teaching, i.e. class English used in actual class settings, lectures on English learning models, and teaching activity skills are anticipated.



I.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급변하는 국제사회 속에서 국가의 존속과 번영을 이루기 위한 비영어권 국가들의 영어교육 열풍이라는 현 시대의 조류로 말미암아, 학교 현장에서 이를 실현 시킬 수 있는 유능한 영어교사를 양성하는 일은 영어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 뿐 아니라, 나아가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열쇠가 된다는 점에서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므로 훌륭한 영어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초석다지기 단계라 할 수 있는 예비영어교사에 대한 교육은 보다 근원적이고 심대한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영어를 외국어로 학습하는 EFL(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환경인 우리나라 영어교육 역시, 영어교육의 주체자인 영어교사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체계적이고 철저히 예비영어교사의 교육이 이뤄져야 함은 당연하다. 또한, 외국어 교사교육 영역의 중요도 조사에서 ‘외국에서의 거주경험’ 다음으로 ‘현장교육 실습’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Lange, 1983).

예비교사 교육은 일반대학교의 사범대학, 교육대학교, 그리고 교육대학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교육대학원의 예비교사 교육 프로그램은 네 개 영역(교양과정, 교육학과정, 교과교육과정, 교육실습과정)으로 구성된다. 그 중 교육실습은 직접 교육현장에 참여하여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인식형성 및 교사로서 요구되어지는 실제적인 지식을 획득한다는 점에서 교원 자격 취득 과정 중에서 매우 의미 있는 활동으로 간주되고 있다(황윤환, 2007). 그러므로 교사로서 사회화되는 중요한 과정인 교육실습을 현

실적으로 교육실습생들은 어떻게 체감하고 있는지에 대해 인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실습의 중요성과 더불어, 많은 문제점 역시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교육실습에 관한 선행연구는 제도적, 운영적 측면에 따른 실습과정의 실태파악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이러한 연구들(김자영, 2007; 박인옥, 2007; 이경희, 2005)은 4주라는 교육실습 기간이 학교의 전반적인 체제를 익히는 데 짧은 기간이므로 실습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교육실습 프로그램이 각 실습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계획되고 운영되어 실습내용이 각 학교의 편익에 따라 누락되는 부분이 많으므로 표준화된 교육실습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실습 가능한 학교가 제한되어 있어 많은 인원의 교생이 한 학교에 배정됨으로써 충분한 배움의 장으로써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교육실습은 교사의 질 제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특히 주목을 받고 있으므로, 예비교사의 교육에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 할 수 있고 더불어 교육의 수준향상과도 관련을 맺고 있는 연구주제이다(조석훈, 2004). 하지만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연구들은 하나의 과목에 국한되지 않고 교과를 통합적으로 바라보면서 전체적인 교육실습의 문제점을 보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교육실습의 제도나 형식에 치우친 연구가 주를 이루었기 때문에 명확하게 교육실습의 틀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실제로 교육실습이 실습생들에게 어떠한 유의미적인 영향을 주고 또한 교육실습생은 이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설명하기 어려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어라는 교과에 집중하여 영어교과 교육실습에 대한 교육실습생의 인식을 조사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향후 영어교과 교육실습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 도움이 되고자 하며 더 나아가 교육과정 전반에 시사점을 주고자 한다.

1.2 연구과제

본 연구는 영어교과 교육실습 실태 및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현재 이뤄지는 교육실습 과정의 문제점들을 알아보고 효율적인 영어교과 교육실습을 위한 개선방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어교과 교육실습의 실태는 어떠한가?

둘째, 영어교과 교육실습에 대한 실습생들의 인식은 어떠한가?

셋째, 영어교과 교육실습의 문제점과 개선점은 무엇인가?

1.3 제한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진다.

첫째, 부산지역 세 개 교육대학원의 교육실습생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으므로 전국에 일반화하기에 제한이 따른다.

둘째, 기타 영어교사 양성기관인 사립대, 사범대의 교육실습생들에게 일반화하기 어렵다.

셋째, 면담을 통한 분석비중이 높는데 비해, 면담자의 수가 작아 그 결과 해석이 제한적이다.

II. 이론적 배경

이 장에서는 본 연구의 토대가 되는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1절에서는 중등 영어교사의 자질에 대해, 2절과 3절에서는 교육실습의 의의와 목적, 그리고 주요 내용에 대해, 4절에서는 교육실습과 관련한 선행 연구들을 고찰하고자 한다.

2.1 중등 영어교사의 자질

모든 교육에 있어 교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영어 교사는 학생들에게 가능한 한 많은 언어적 입력(input)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다른 어떤 교과와 교사보다 그 영향력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Wallace, 1994). 즉, 영어교육의 성과를 좌우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 가장 중요시 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우수한 자질을 가진 교사 역할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학교나 교육기관은 영어 교사에게 전문적인 발전을 하도록 요구한다. 이에 영어교사는 자신의 교수방법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고 평가 받아야 한다. 영어교사의 수업 능력은 영어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고, 교사는 이를 위하여 자신의 영어구사력과 수업기술 향상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해야 한다.

우수한 영어교사의 특징으로는 언어 구사력, 전공 분야 이론에 대한 전문성, 교수 기술의 보유를 들 수 있다(김덕기, 1987). 영어 교사는 일반적

으로 영어를 유창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교사가 교실에서 목표 언어를 많이 사용하면, 학습자의 학습 동기와 목표 언어 능력을 향상 시키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Brown(2007)은 영어 교사의 영어 구사 능력에 대한 기준으로 다음의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 (1) 정상 속도의 영어를 이해하는 능력(understand the foreign language spoken at normal tempo)
- (2) 알기 쉽고, 의미가 명료하게 영어를 말하는 능력(speak the language intelligibly)
- (3) 영어를 즉각적으로 읽고 이해하는 능력(read the language with immediate comprehension and without translation)
- (4) 명확하고 정확하게 영어를 쓰는 능력(write the language clearly and correctly)
- (5) 영어에 관한 지식(understand the nature of language)

다시 말해, 영어교사는 정상 속도의 영어 원어민들의 대화를 이해 할 수 있어야 하고,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으며, 영어를 읽고, 쓰는 능력과 영어의 언어학적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김정렬, 2007).

또한 김정렬(2007)은 수업의 효과는 교사의 영어 교과에 대한 전문 지식과 수업 기술에 달려있다고 하면서 영어 수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목표 언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적합한 교수기법을 도입하여 교실상황에 적용 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최진황(2001)도 유능한 영어 교사의 자질로 해박한 지식이 아닌, 학습이 일어나도록 학생들을 도와줄 수 있는 수업기술을 꼽으면서 영어 교사의 수업 기술의 중요성을 언

급하였다.

멀티미디어 기술이 급격히 발달하면서 영어 교재에 대한 개념의 폭이 넓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영어 교재는 단지 교과서에 국한된 개념을 벗어 난지 오래다. 그렇기에 영어 교사는 영어 교육용 시청각 자료의 교육 공학적 활용에 필요한 기술 역시 지녀야 하며, 다양한 교육 매체를 어떻게 수업에 적절히 사용할지에 대한 창의성도 함께 지니고 있어야 할 것이다.

2.2 교육실습의 의의와 목적

교육실습(student teaching, teaching practicum)은 교원의 양성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과정의 일부이며, 교사 양성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경험의 시기(Clement, 2002)라 할 수 있다. 습득한 교직에 관한 전문적인 이론을 교육현장에서 직접 체험해 봄으로써 자신을 평가해보고 교직에 대한 적성여부를 최종 검증(Darling-Hammond, Wise & Klein, 1999)해보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이러한 교육실습 과정은 교원자격증을 부여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의 하나일 뿐 아니라 이론과 실체가 만나는 중요한 기회이다(김남순, 1999).

교육실습의 목적은 교원양성기관에서 이수한 교직교양, 교직과정, 전공과정의 기초적인 이론을 교육활동의 현실적 장면에 적용하고 발전시켜 장차 교사로서 당면할 직무수행에 필요한 품성과 자질, 지적 능력이나 지도력 그리고 지도기술의 연마를 중심으로 한 교직경험을 쌓는 데에 있다. 이를 통하여 교직에 뜻을 둔 사람들은 교원으로서의 적성을 검증하고, 동시에 교직에 관한 이해를 증진시킨다.

보다 구체적으로 교육실습의 목적을 진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직에 대한 신념을 세울 수 있다. 교사는 무엇보다 교육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사명감을 가지고 교직에 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둘째, 교직에 기대되는 자질과 품성을 배양할 수 있다. 예비교사는 교육실습을 통하여 그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 공평한 사랑, 긍정적 자세, 친밀감 등의 태도와 행동을 내면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셋째, 학생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다. 학교 교육은 학생의 행동특성의 변화에 그 주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학생의 흥미, 능력, 소질, 성격, 환경, 건강상태, 사회성, 지식수준 등 전체적인 학생에 대한 이해가 전제될 때에만 바람직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교육실습을 통하여 그와 같은 종합적 이해를 위한 방법과 기술적인 문제를 몸에 익히지 않으면 안 된다. 넷째, 학습지도 기술을 체득할 수 있다. 교재의 파악이나 방법의 구조적 파악 그리고 수업기술, 학습지도안 작성, 실제 수업을 통하여 수업과정을 조직하고 전개하는 능력은 교육실습을 통하여 체득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섯째, 생활 지도 및 특활지도의 기술을 체득할 수 있다. 상담, 진로지도, 여가지도, 안전지도, 건강지도, 성격지도, 그리고 학교행사, 학생회등에 대한 조직과 프로그램의 작성 및 지도기술을 체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섯째, 학급경영의 기술을 체득할 수 있다. 교사는 학습 및 생활지도의 효과를 올리기 위하여 학급환경과 학급시설의 정비, 학생관리, 건강관리등 학급경영기술을 필요로 하므로 교육실습에서 이 목적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김경배, 1996).

2.3 교육실습의 주요 내용

김경배(1996)는 교육실습의 영역을 교과학습지도 영역, 생활지도 영역,

특별활동지도 영역, 학교경영 영역, 학급경영 영역의 다섯 가지로 구분하였다. 그 중 교육 실습의 핵심이 되는 교과학습지도 영역, 즉 수업실습에 대해 한상호와 유평수(2003)은 관찰실습, 참가실습, 수업실습의 3단계의 과정으로 나누어 논의하였다. 구체적으로, 관찰실습은 교사로서 교직생활 전반에 관하여, 즉 교과지도와 생활지도, 학급경영과 학교경영 전반에 관하여 교육현장의 실재를 있는 그대로 관찰함으로써 나름대로 현장교육에 대한 감을 잡고 교육실습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한 정보를 얻는 단계다. 참가실습은 방관자로서 객관적 관찰에 그친 관찰실습단계를 거친 다음에 지도교사의 상호협조에 따라 학급경영과 교과지도 및 생활지도의 보조자 이면서도 조력자로서 구체적인 교육실체에 파고드는 단계다. 교육실습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실습은 교생이 어엿한 교사로서 실제로 수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독자적으로 진행하면서 교사의 일차적 의무라 할 수 있는 교수경험을 쌓는 일이다(한상호와 유평수, 2003).

실제 수업을 교육실습생이 독자적으로 책임을 지고 교사로서 교과지도에 대한 수행능력을 신장시키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인 수업실습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정영근, 2004, p. 38).

- 1) 담당 교과 교육과정 구성의 전반적인 이해 및 교육계획 수립능력 습득
- 2) 단위 수업의 계획 및 진행 능력 배양
- 3) 수업 진행의 각 단계에서 적합한 학습 방법 및 기법 습득
- 4) 수업의 진행과 연관된 다양한 변인들의 역동적 관계 체험
- 5) 교육 평가자로서 적절한 평가방법과 처리능력 배양
- 6) 특별활동의 교육적 의의 인식 및 적절한 지도 능력 배양
- 7) 학급경영에 대한 이해 확장 및 경영능력 배양

8) 교과교사로서의 임무 습득 및 자신의 적성과 자질 평가

교과학습지도 영역, 즉 수업실습에서의 그 실습내용은 학습지도안 작성, 학습동기 유발 방법, 학습지도자료의 제작과 활용, 학습자의 특성, 개인차에 맞는 학습지도 방법, 교과내용의 구조 이해, 판서의 방법, 보상과 벌, 학습자들과의 상호작용 방법 등이다(서재복과 이정원, 2000).

수업실습은 예비교사가 자신의 계획아래 실제 수업을 진행해 보는 단계로서, 수업실습이 발전적인 교수경험으로 남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먼저 지도교사 수업을 참관 해보는 참관단계에서 본인의 실제 수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도교사 수업의 전반적인 사항을 꼼꼼히 관찰해야 한다. 교실 현장을 직접 관찰해봄으로서, 학생들에 대한 이해와 학습지도 방법 및 활동내용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실습생 자신이 수업에 임하게 될 때 간접적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교육실습생의 실제수업 전에는 지도교사의 지도하에 수업지도안을 작성한다. 지도교사의 확인을 거치게 되면 이를 토대로 지도교사의 도움 없이 실제 수업을 주도적으로 이끌게 된다. 대학에서 배운 교수이론 및 교육이론을 아이들의 교과학습활동 지도에 실제 적용해보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장차 훌륭한 교사로서의 자질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수업실습생은 학습지도 계획 및 실제수업상황에서 벌어지는 돌발적인 상황에 대한 이해, 학생들의 학업능력 차이 및 특성이해, 개인지도 및 집단지도, 동기유발 방법, 보상과 벌, 질문과 응답유도 방법 등 여러 가지 사안들을 미리 잘 고려하여 수업을 이끌어야 한다.

이미 교육실습의 의미나 목적에서 밝혔듯이 교육실습은 단순한 교수기술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전공과목인 교과지식과 교직과정에서 배운 교육이론과 방법론을 교육현장에서 표면화하고 행동화하는 실천과정이라 할

수 있다(남정걸, 1998). 잠재적인 지식이나 이론을 교육실습을 통하여 어떻게 표면화, 행동화하느냐가 중요할 것인데, 바로 수업실습은 표면화, 행동화를 체득하는 결정적 단계라 할 수 있는 것이다.

2.4 선행연구

영어교과 교육실습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영어교과 교육실습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연구로, 정진아(2001)는 교육실습의 운영 면에서 예비교사들의 인식은 부정적이었으며, 이는 교원 양성과정에서 학습한 내용과 실제 실습 현장과의 연계성 부족을 이유로 들고 있다. 또한 양민아(2003)는 교과를 고려한 개별화된 실습지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하였다. 민찬규(2004)는 한국교원대학교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교원 양성 대학 영어과 교육과정을 분석한 결과, 단기간의 교육실습은 영어교사로서의 전문성을 향상시키지 못하고 형식적인 과정으로 끝나 버린다는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임용 전 인턴제 실습과 교육실습 이전의 사전실습, 지도교수와 지도교사, 그리고 학습자 간의 협력 체제 구성 등을 제시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김자영(2007)은 서울·경기 소재의 중·고등학교 교육실습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교육실습 운영에 관한 인식과 전반적 실태를 분석하여 교육실습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했다. 교육실습프로그램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지도교사의 자질과 역할, 실습학교 운영체제 등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교육실습의 제도나 형식, 즉 구조적인 측면의 문제점만 제기하였을 뿐이다. 한편 보다 구체적이고 현상학적인 접근으로

교육실습에 관해 연구한 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진인(2006)은 예비교사들은 수업의 계획과 운영 면에서 다양한 갈등을 겪고 있으며, 갈등 상황을 실습지도교사의 지원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실습지도 교사를 위한 교육실습이해의 교사연수 프로그램들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소경희(2004) 역시 교육실습이 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데 중요성과 의미를 인정받는 만큼 폭넓은 연구가 진행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나아가 교육실습 과정에 참여하는 예비교사들의 입장에 서서 이들이 무엇을 경험하고 느끼며 이를 통해 그들이 어떻게 실천적 지식을 발달시켜 가는지를 심층적으로 드러내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강경희(2004)는 과학교육전공 교육실습생을 조사한 결과로, 교사가 수업에서 갖추어야 할 능력으로 교과목 내용에 대한 완벽한 이해, 카리스마적 기질, 학생과의 친밀한 관계, 일상과학 및 상식, 학생들의 지적 자극과 사고발달 유도를 꼽았다고 밝혔다.

더불어 허창수(2007)도 교육실습과 관련된 연구들이 대체로 양적연구와 형식적인 연구에 치우쳤기 때문에 교육실습의 실재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하면서, 교육실습의 실제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연구가 선행되어야만, 제도의 개선과 교사양성 교육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고, 더 나아가 교사의 전문성 그리고 교육의 질 향상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 하였다.

정원주(2006)는 학생과 예비교사의 상호작용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고 보았다. 실습초기의 기대감이 도전의식, 혼란, 실망의 감정으로 변하다가 점차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으로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되면서 교실 수업에서 자신감으로 이어진다고 보았다.

그러나 위 연구들이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가까이서 반영했다고 볼 수는 있겠으나, 교육실습의 여러 교과 중 영어교과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 영어교과에 대한 인식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Ⅲ. 연구 내용 및 방법

3.1.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부산에 소재한 3개의 교육대학원 중등영어교육과 4·5학기에 재학 중인 62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 중 여자가 53명(85.5%), 남자가 9명(14.5%)으로 연구에 참여한 수업실습생들의 성별은 여자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은 2010년 또는 2011년도에 부산과 그 인근도시 내에 소재하는 중, 고등학교에서 4주의 교육실습을 한 학생들이다. 총 62부의 설문지가 각각의 연구 참여자에게 이메일을 통해 전해졌으며, 설문지 62부 전부가 최종 분석에 이용되었고, 양적 통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질적 자료로 일부의 실습생을 대상으로 면담을 시행했다.

본 설문 응답자들의 교육실습 학교를 조사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중학교에서 37명, 고등학교에서 25명의 실습생들이 교육 실습을 이수하였다.

<표 1> 참여 실습 학교

	남		여		전체	
	F	%	F	%	F	%
중학교					37	60
고등학교					25	40
전체	9	14.5%	53	85.5%	62	100

3.2. 연구 도구

3.2.1. 설문지

본 연구에서는 부산지역과 그 인근지역의 중,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영어교과 교육실습의 실태와 이에 따른 연구 대상자들의 인식, 그리고 영어교과 교육실습의 방향 및 개선점을 알아보기 위해서 설문지를 제작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는 정경애(2010)를 참고하여 연구에 부합하는 항목들을 선별하여 개작하였다. 설문지는 전체적인 실습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문항 9개, 교육실습생의 수업시연 관련 문항 12개, 실습의 개선방향 파악을 위한 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선정된 항목들은 범주 선택형, 서술형 등 27문항의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었다. 모든 응답에 대해서 하나만 선택하도록 했다. 질문지의 영역별 주요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설문지 구성

영역	문항내용	문항 번호	문항 유형
전체수업 실태	교사와 동료교생의 수업참관 횟수	1,2	개방형
	본인의 수업시연 횟수	3	
	교육실습요소 파악	4	
	실습기간 파악	5	범주 선택형
	배정된 실습생수의 파악	6	
	수업참관 기회제공 적절성 파악	7,8	
	수업시연 기회제공 적절성 파악	9	
	수업시연 만족도	10,11	
	수업실습생의 수업방법	12	
실습생 수업시연 실태	수업시연에서의 영어사용 정도	13	범주 선택형
	흥미 있는 수업이 되도록 노력한 정도	14	
	학생들에게 대답할 기회를 제공한 정도	15	
	수업시연의 성과관련 요소에 관한 견해	16	
	수업시연 후 수업협의준부와 협의만족도	17,18,19	
	교육실습생의 교수 준비도 여부	20,21	
	영어교과 교육실습 개선방향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영어수업참관 횟수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영어수업시연 횟수		23	
실습학교에 바라는 강좌나 요구사항		24	
수업실습을 진행하는 데 있어 제약점		25	
실습 전 대학원에 바라는 사항		26	
교육실습이 나아가야 할 방향		27	개방형

3.2.2. 면담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에의 제약을 극복하고, 영어수업실습에 대한 교육대학원 학생들의 인식을 좀 더 깊이 알아보고자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은 연구자가 일정하게 질문하는 문항이 갖추어져 있다는 점에서 구조화된 면담과 일치하지만, 연구대상자의 반응에 따라 연구자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유롭고 편안한 흐름 속에서 실시하였다. 면담 대상자들의 구성은 <표 3>, 면담내용은 <표 4>와 같다.

<표 3> 면담 대상자 정보

대상	성별	담당학교	담당학년
F1	여	고등학교	1
F2	여	고등학교	1
F3	여	중학교	2

<표 4> 면담내용 구성

내용	문항번호
지도교사와 동료 교육실습생의 수업참관은 어땠나요?	7,8
수업시연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나요?	9
실습기간은 적절하다고 생각 하나요?	5
영어수업 시연은 어땠나요?	10,11
수업시연 중 영어사용 정도는 얼마나 되나요?	13
재미있는 수업이 되도록 노력 했나요?	14
수업 중 학생들에게 질문을 자주 하였나요?	15
영어수업 성패에 있어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요?	16
수업협의를 어땠나요?	19
실습학교에 바라는 강좌나 요구사항이 있다면?	24
교육대학원에 바라는 강좌나 요구사항이 있다면?	26
수업실습 외 실습내용에 언급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4
실습 후 느낌은?	27

3.3. 연구 절차

먼저 연구주제 관련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교육실습생용 설문지를 제작했다. 그리고 설문대상을 선정했으며, 연구 대상자들에게 연구의 취지를 알리고 동의를 구한 뒤 이메일을 이용하여 설문지를 배포, 회수하였다. 또한 3명의 면담 대상자를 선정 후 면담을 실시하였고, 설문지, 면담을 통해 얻은 결과를 토대로 자료를 분석하고 연구 결과를 정리하였다. 연구 절차를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표 5〉 연구 절차 및 기간

연구기간	연구절차
2011.09.09~09.30	주제선정 및 선행연구 분석
2011.10.01~10.07	설문문항 제작 및 검토
2011.11.14~11.30	설문지 배부 및 회수
2011.12.05~12.16	양적연구조사 결과정리
2012.03.03~03.20	면담 실시, 질적 연구조사 결과정리
2012.04.01~04.20	결과 도출

3.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양적 연구 자료와 질적 연구 자료이다. 선정된 교육대학원생 62명을 대상으로 수집된 양적 자료는 각 항목에 따라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질적 연구 자료로는 선정된 교육대학원생 62명 중 다시 3명을 추려 이루어진 면담내용들이다. 이들 내용 중 공통적인 내용을 묶어 범주화하여 정리하여 설문지 분석의 보충자료로 활용하였다.

IV. 결과 및 논의

좀 더 내실 있는 영어교과 교육실습을 위한 현 교육실습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교육실습제도 운영 실태 및 실습생의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현재 이뤄지는 교육실습 과정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4.1 전체 교육실습 실태

전반적인 교육실습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우선 지도교사와 동료교생의 수업참관 횟수, 그리고 교육실습생의 수업시연 횟수 조사를 알아보았다. 지도교사의 수업참관 횟수를 묻는 문항에 대해 응답자의 37%가 지도교사의 수업참관 횟수를 '1회 ~5회' 이하로, 응답자의 20%가 '6회~10회' 이하로 지도교사의 참관이 이루어졌다고 응답했다. '22회' 이상의 지도교사 참관이 있었다는 응답도 12% 있었다(<표 6> 참조).

<표 6> 지도교사의 수업참관 횟수

	F	%
1회~5회	23	37
6회~10회	13	21
11회~15회	8	13
16회~20회	10	16
21회 이상	8	13
전체	62	100

지도교사의 수업 참관 기회를 적절히 제공받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실습생들의 인식을 묻는 문항에 대해 응답자의 44%가 '너무 적다' 혹은 '적은편이다'로 응답하였다. '너무 많다'로 응답한 비율은 8%를 차지했다. 지도교사가 교육실습생의 수업참관에 소극적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교육 실습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데 제약요인이 될 수 있다(〈표 7〉 참조).

〈표 7〉 지도교사의 수업참관에 대한 분석

	F	%
너무 적다	11	18
적은 편이다	17	27
적당하다	11	18
많은 편이다	18	29
너무 많다	5	8
전체	62	100

지도교사가 교육실습생의 수업에 참관을 하고 적절한 피드백을 주는 것이 실습생의 수업시연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다음의 면담을 통해 알 수 있다. 또한 여건상 지도교사의 수업참관이 많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면담자도 있었다. 면담 참여자의 말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지도교사의 수업참관 횟수가 적었던 편이라서 다양한 수업방법을 시도하는데 부담감 없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과 더 빨리 친해질 수도 있었어요. (F1, 2012년 3월 3일)

전문적인 지도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업무에 많이 바쁘

서서 수업만 맡기고 참관은 거의 하지 않으셨어요. (F2, 2012년 3월 10일)

수업내용뿐만 아니라 학습자료 준비, 학생들의 관심을 끄는 방법이라든지, 많은 것들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셨고, 제 수업을 계속 봐주시면서 문제점들을 체크해주셨어요. 수업시연을 하면 할수록 수업에 대한 자신감도 불고 실력도 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좋은 경험이었고, 매우 유익한 경험이었어요. (F3, 2012년 3월 20일)

영어교과 교육실습 기간 중 동료 실습생이 자신의 수업을 참관한 횟수를 묻는 문항에 대해 ‘한번도 참관하지 않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8%였다. ‘1회~5회 이하’의 참관을 하였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30%를 차지했다. ‘6회~10회’라고 응답한 비율은 27%, ‘11회~15회’라고 응답한 비율은 11%였다(<표 8> 참조).

<표 8> 동료 실습생의 수업참관 횟수

	F	%
미 참 관	5	8
1회~5회	19	31
6회~10회	17	27
11회~15회	7	11
16회~20회	7	11
21회 이상	7	11
전체	62	100

영어교과 교육실습 기간 중 동료교육실습생이 응답자 본인들의 수업에 참관한 기회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인식을 묻는 문항에 대해 ‘적당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0%였다. 그러나 응답자의 44%가 ‘너무 적다’ 혹은 ‘적은 편이다’로 응답하였다. ‘7번 문항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동료 교육실습생 역시 수업 참관에 대해 소극적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9> 참조).

<표 9> 동료 교육 실습생의 수업참관에 대한 분석

	F	%
너무 적다	9	15
적은 편이다	19	31
적당하다	13	21
많은 편이다	16	26
너무 많다	5	8
전체	62	100

동료실습생의 수업 참관은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하고, 배우는 계기로, 긍정적이고 유익한 활동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면담을 통해 알 수 있다. 면담 참여자의 말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동료 교육 실습생이 처음에 참관하다가 4주차쯤 에는 참관을 하지 않았는데, 처음에 참관을 할 때에는 모둠 활동 시 학생들 통제에 도움을 많이 주었어요. 그리고 수업이 끝나면 함께 수업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유익했던 것 같아요. (F2, 2012년 3월 10일)

제가 수업시연을 할 때면 항상 지도교사와 동료교생이 함께 제 수업을 참관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지도교사 앞에서 시연을 하는 것보다 동료교생 앞에서 시연을 한다는 것이 더 큰 부담으로 다가왔는데 오히려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 편하게 의지하기도 하고 옆에서 도움을 주고받기도 하면서 좋았던 것 같아요. (F3, 2012년 3월 20일)

수업시연 횟수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응답자의 19%가 ‘1회~5회 이하’, 32%가 ‘6회~10회’ 이하의 수업시연 기회를 가졌다고 응답했다. 반면 ‘21회’ 이상의 수업시연 기회를 가졌다고 한 응답자도 17%가 있었다 (<표 10> 참조).

<표 10> 실습생의 수업시연 횟수

	F	%
1회~5회	12	19
6회~10회	20	32
11회~15회	9	15
16회~20회	10	16
21회 이상	11	18
전체	62	100

수업시연 기회를 적절하게 제공 받았는지에 대한 실습생들의 인식을 묻는 문항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학교(중,고등학교)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chi^2=15.99$, $p=0.003$), 중학교에서 교육실습을 한 응답자 35%가 ‘적당하다’라고 응답하였고, 47%가 ‘많은 편이다’ 혹은 ‘너무 많다’로 응답했다. 반면, 고등학교에서 교육실습을 한 응답자 60%가 ‘너무 적다’ 후

은 ‘적은 편이다’로 응답하여 차이를 보이고 있다(<표 11> 참조).

<표 11> 수업시연기회 제공이 적절하였는지에 대한 분석

	중학교		고등학교	
	F	%	F	%
너무 적다	1	3	7	28
적은 편이다	5	14	8	32
적당하다	13	35	7	28
많은 편이다	11	30	2	8
너무 많다	7	19	1	4
전체	37	100	25	100

$\chi^2=15.99$ $p=0.003$

영어수업의 시연기회가 학교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중학교에서 교육실습을 한 면담자의 경우 26번의 수업시연 기회를 가졌고, 반면 고등학교에서 교육실습을 한 면담자의 경우 4번의 수업시연 기회를 가졌다. 면담참여자의 말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중학교에 교육실습을 갔는데 3·4주차동안 26시간의 수업시연을 했어요. 그리고 매번 수업참관을 하셨고요. 제가 해야 할 수업이 많다보니, 그 준비를 하는 과정이 무척 힘들었어요. 지도교사의 수업을 동료교육 실습생과 나눠서 맡았지만 학교에서의 수업경험은 처음이라 많이 버겁더라고요. (F3, 2012년 3월 20일)

저는 고등학교에서 교육실습을 했는데 3,4주차동안 4시간밖에 수업시연을 하지 못했어요. 아이들과 교실에서 수업이 이뤄지는 동안 친해지는 무언가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수업시연의

횃수가 아쉬워요. (F2, 2012년 3월 10일)

교육실습의 기간이 적절했는지를 묻는 문항에 대해 응답자의 64%가 4주의 교육실습기간이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28%의 응답자는 ‘너무 짧다’ 혹은 ‘짧은 편이다’로 응답했다(<표 12> 참조).

<표 12> 실습기간의 적절성에 대한 분석

	F	%
너무 짧다	8	13
짧은 편이다	10	16
적절하다	40	65
긴 편이다	4	6
전체	62	100

그러나 교육실습 이후 예비교사들은 실습의 기간이나 횃수가 현 수준에서 조금 더 늘어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을 면담을 통해 내비추었다.

4주의 실습기간은 적당하다고 봐요. 단 한번 의 교육실습이라서 아쉬움은 있지만요. 기간은 적당하다고 보지만 이런 실습의 기회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학교현장에서 적응력을 더 기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가게 되는 교육실습이라면 적응도 빨라질 거 같아요. (F3, 2012년 3월 20일)

실습기간 중반부에는 빨리 실습이 마무리되었으면 했는데 막상 실습이 끝날 무렵에는 아쉬움이 컸어요. 한주정도 더 하고 싶다고 느꼈어요. 더 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F2, 2012년 3월 10일)

학교에 배정된 실습생 수가 적당했는지를 묻는 문항에서 응답자의 40%가 '적당하다'고 응답한 반면 '너무 적다' 또는 '적은 편이다'라고 응답한 응답률도 40%를 차지했다. 많은 학교들이 실습생들의 인원을 소수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러한 각 학교들의 시스템은 원활한 교육실습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표 13> 참조).

<표 13> 학교에 배정된 실습생 수의 적절성에 대한 분석

	F	%
너무 적다	9	15
적은 편이다	16	26
적당하다	25	40
많은 편이다	12	19
전체	62	100

이상의 교육실습 실태를 종합해보면, 실습생들은 수업참관을 유익한 활동으로 인식하고 있었지만, 지도교사와 동료교육실습생의 수업참관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수업시연의 기회제공에 있어 중,고등학교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실습의 기간에 대해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기간의 연장도 고려해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학교에 따른 교육실습시스템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교육의 내용이 일치 하지 않아 교육실습생에 혼란을 주고 있었다.

4.2 영어교과 교육실습생의 수업실습에 대한 인식

수업시연에 대한 실습생들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전혀 그렇지 않다’ 또는 ‘그렇지 않다’로 응답한 비율이 57%를 차지했다. 반면 자신의 영어 수업시연에 ‘매우 만족 한다’라는 응답은 4%에 그쳤다(<표 14> 참조).

<표 14> 영어수업 시연에 대한 만족도 분석

	F	%
전혀 그렇지 않다	10	16
그렇지 않다	26	42
그렇다	23	37
매우 그렇다	3	5
전체	62	100

영어수업 시연에 대한 부정적 견해와 반성적 사고는 면담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면담참여자의 말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전체영어수업을 영어로 진행하고 자하는 욕심이 있었는데, 수업 준비나 다른 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 100%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진 못했다. 한국인 선생님이 영어로 영어를 수업한다는 것은 매력적이다. 노력해야겠다. (F3, 2012년 3월 20일)

영어수업 시연이 불만족스러웠던 이유는 교실영어 사용을 잘 못해서,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대답이 없어서, 학생 통제를 잘 하지 못해서,

시간분배를 잘하지 못해서, 학습 자료와 기자재 사용이 서툴러서, 수업시간에 긴장이 되어서의 순서로 나타났다(<표 15> 참조).

<표 15> 영어수업 시연의 불만족 이유

	F	%
교실 영어사용을 잘못해서	26	42
학생 통제가 안 되서	11	18
학생들의 참여와 적극적인 대답이 적어서	16	26
무응답	1	2
시간 분배를 잘하지 못해서	3	5
학습 자료와 기자재 사용이 서툴러서	3	5
수업시간에 긴장이 되어서	2	3
전체	62	100

구체적인 영어수업 시연의 불만족 이유를 묻는 물음에 교실 영어사용에 대한 어려움, 학생들의 반응이나 호응을 이끌어내는 것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수업시연을 하면서 물론 시연의 횟수가 거듭되면서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학생들의 반응을 이끌어 내는 것은 힘들게 느껴졌어요. 지도교사의 수업방식에 익숙해진 학생들이라 갑자기 수업방식을 바꿔서 수업을 진행 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보이는 학생들도 눈에 띄었거든요. 손님이라는 기분이 들어서 그런지 그런 학생들을 보면서 새로운 수업방법을 적용해보는 것이 두려웠어요. (F3, 2012년 3월 20일)

선생님이 목표언어를 많이 사용하고 아이들은 그러한 환경에 많이 노출될수록 언어의 습득이 빠르다고 배웠어요. 영어수업 시연을 거둬하면서 교실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확실한 구사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내가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느꼈어요. (F1, 2012년 3월 3일)

교육실습생의 수업방법은 어떤 식이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일방적 설명위주’라고 응답한 비율은 51%, ‘모둠 활동 위주’라고 응답한 비율은 48%를 차지했다. 두 개 응답항목의 비율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표 16> 참조).

<표 16> 수업방식에 대한 분석

	F	%
일방적 설명위주	32	52
모둠 활동위주	30	48
전체	62	100

영어교과 수업시연을 하면서 어느 정도 영어를 사용했는지 알아보았다. ‘40~60%’가 가장 많았고, ‘60~80%’, ‘20~40%’, ‘0~20%’, ‘80~100%’의 순서로 나타났다. ‘80~100%정도로 영어를 사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4.8%에 그쳤다(<표 17> 참조).

〈표 17〉 수업에서 영어사용 정도에 대한 분석

	F	%
0~20%	11	18
20~40%	15	24
40~60%	17	27
60~80%	16	26
80~100%	3	5
전체	62	100

영어수업 시연에 있어 영어사용의 정도를 묻는 물음에 TEE(Teaching English in English)의 실현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보여주었다. 면담참여자의 말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영어로만 수업을 하는 것은 매우 힘들고 아이들도 알아듣지 못해서 수업의 진행이 힘들었다. 그래서 교실에서의 영어사용은 20%정도 밖에 되지 않았던 것 같다. (F2, 2012년 3월 10일)

지도교사께서 수업의 진행을 60%이상 영어로 하라고 하셔서 힘들었다. 말은 수업시수도 많은 편이었다. 게임이나 활동이 많은 영어수업에서 게임설명과, 활동을 이끌어 나가는 역할자로서 적절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었다. 그리고 막상 어떤 표현을 써야할 지 막막한 상황도 있었다. (F3, 2012년 3월 20일)

가능한 재미있는 영어수업이 되도록 노력했는지에 대해 ‘그렇다’ 혹은 ‘매우 그렇다’가 83%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대다수가 학생들의 흥미를 끌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였다(<표 18> 참조).

<표 18> 흥미로운 수업이 되기 위한 노력 정도

	F	%
그렇지 않다	10	16
그렇다	20	32
매우 그렇다	32	52
전체	62	100

실습생들은 학생들의 특성이나 교실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파악하여 활동 위주의 수업을 계획하는 등 재미있는 영어수업이 되도록 노력하였지만 수업 중 소란스러움, 학생 통제에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활동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니 내가 수업을 이끌어나가는 분량은 줄어들고 학생들이 직접 해야 하는 과업이 많아지면서 오히려 수업의 부담감을 덜 수 있었고, 학생들도 더욱 활발하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수업에 임해주었다. 그러나 간혹 승부욕이 강한 아이들의 특성으로 수업 진행시 그 통제에 어려움이 많았다. (F3, 2012년 3월 20일)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다양하고 구체화된 질문을 얼마나 자주 하였는지에 대해 응답자 전체의 48%가 ‘매우 그렇다’, 32%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즉, 전체의 80%가 긍정적으로 답함으로써, 교육 실습생의 수업 중 학생들과의 활발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졌음을 확인 할 수 있다(<표 19> 참

조).

〈표 19〉 질문을 통하여 학습자의 수준을 인식한 정도

	F	%
그렇지 않다	12	19
그렇다	20	32
매우 그렇다	30	48
전체	62	100

교육실습생들은 질문을 통해 수업 전 경직된 분위기를 풀거나, 학생들과의 친근한 관계를 유지하기도 하였고, 수업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목적에서 또, 학생들의 수준을 파악하여 교수의 내용을 선별하는데 질문을 유용하게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꼭 수업내용에 관한 질문이 아니더라도 아이들과 소소한 일상에 대해 얘기를 하면서 친밀한 관계가 형성됐던 것 같아요.
(F1, 2012년 3월 3일)

수업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은 매우 필수적이고 중요한 요소 인 것 같아요. 질문을 통해서 아이들의 수준도 파악할 수 있었고 대화위주의 수업이 진행되니까 저 스스로도 긴장이 많이 풀려 자연스럽게 수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F2, 2012년 3월 10일)

지도교사가 수업을 참관할 때는 부담감으로 인해서 수업외의 질문들은 많이 자제 했던 것 같고, 수업진행 사이마다 아이들이

잘 이해하고 있는지 질문을 많이 했었고 어떤 개념을 설명하기 전에 개개인의 수준에 맞는 질문을 함으로써 배울 개념들을 접근시켰다. (F3, 2012년 3월 20일)

영어수업의 성패 관련 요소에 대한 인식에서 ‘교사의 영어구사력’ ‘학생과 교사의 친근한 관계’ ‘시각적인 자료 및 동기유발 자료’ 가 각각 21%의 같은 비율로 나타났다(<표 20> 참조).

<표 20> 영어수업 성패 관련 요소 인식

	F	%
교사의영어구사력	13	21
학생들과 교사의친근한 관계	13	21
학생들의 영어수준에 대한 이해	11	18
시각적인 자료 및 동기유발 자료	13	21
교사의 활기찬 수업진행방식	12	19
전체	62	100

다음의 면담에서도 영어구사력에 대한 실습생들의 고민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수업 자료를 만드는 것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고, 그에 대한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도교사께서 영어로 영어수업을 진행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수업을 준비할 때 꽤 많이 신경 쓰이고 힘들었어요. 아직 실력이 많이 모자라다는걸 실감 했어요. (F3, 2012년 3월 20일)
교사는 물론 인격적으로 완성된 사람이어야 하지만 그래도 제

일 중요한 건 자기 교과에 대한 전문성이라고 생각해요. (F1, 2012년 3월 3일)

50분의 시간동안 교사는 학생들에게 정해진 내용과 분량의 지식을 전달해야 하잖아요. 수업을 하면서 중요하다고 느낀 건 얼마나 효율적으로 학습내용을 아이들에게 전달해서 흡수 시키느냐 인데, 그러려면 다양한 학습 자료나 동기유발 자료가 필수적인 것 같아요. 실제로 수업준비시간의 대부분을 자료 찾는데 보낸 것 같아요. (F2, 2012년 30월 10일)

다음으로, 영어수업 성패 관련 요소에 대한 인식에 대해 중학교에서 실습을 한 응답자 27%가 학생들과 교사의 친근한 관계를 영어수업 성공 요소의 첫 번째로 뽑았다. 반면에 고등학교에서 실습을 한 응답자 44%가 영어수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인으로 교사의 영어구사력이라고 응답했다 (<표 21> 참조).

<표 21> 영어수업 성패 관련 요소 인식

	중학교		고등학교	
	F	%	F	%
교사의 영어구사력	2	5	11	44
교사와 학생과의 친근한 관계	10	27	3	12
학생들의 영어수준에 대한 이해	8	22	3	12
시각적인 자료 및 동기유발 자료	8	22	5	20
교사의 활기찬 수업진행방식	9	24	3	12
전체	37	100	25	100

$\chi^2=14.17$ $p=0.006$

영어수업 시연 후 협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서는 ‘있다’가 98%, ‘없다’가 2%로 나타났다(<표 22> 참조).

<표 22> 수업시연 후 협의 여부

	F	%
있다	61	98
없다	1	2
전체	62	100

영어수업 시연 후 수업협의를 만족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분석한 결과, ‘그렇지 않다’ 혹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67%로 가장 많았다(<표 23> 참조).

<표 23> 영어수업 협의 만족도

	F	%
전혀 그렇지 않다	7	11
그렇지 않다	35	56
그렇다	17	27
매우 그렇다	3	5
전체	62	100

영어수업 시연 후 협의에 불만족한 이유를 분석한 결과, ‘지도교사의 지도시간이 너무 짧아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27%, ‘잘한다고만 하고 구체적인 진술이 없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19%를 차지했다. 이를 통해 지도교사의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지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데

보다 알찬 영어교과 교육실습이 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표 24> 참조).

〈표 24〉 수업협의를에 대한 불만족 이유

	F	%
무응답	21	34
잘한다고만 하고 구체적인 진술이 없어서	12	19
지도교사의 수업가치관이 나와는 달라서	5	8
지도교사의 지도시간이 너무 짧아서	17	27
개선점의 언급이 없어서	7	11
전체	62	100

수업시연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을 기대했지만, 시간상의 이유로 제대로 된 수업협의를 이뤄진 적이 거의 없었다는 수업협의를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다음의 면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지도교사가 수업을 참관하고 수업협의를 하는 시간은 고작 1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어요. 수업을 마치고 나오면서 교무실로 함께 내려가는 동안에 수업협의를 이루어진 거죠. (F1, 2012년 3월 3일)

준비한 수업을 지도교사에게 보이고, 어떤 평가를 받을지 기대했지만, 전문적이고 세세한 수업 평가가 이뤄졌던 적은 없고 그저 '잘 한다'정도의 이야기만 하셨습니다. (F2, 2012년 3월 10일)

수업에 관련된 많은 정보들, 예를 들면 어떤 수업자료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또는 어떤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하는지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할 기회는 거의 없었던 거 같다. (F3, 2012년 3월 20일)

영어를 가르칠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로 응답한 비율이 5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렇지 않다’로 응답한 비율은 37%로 뒤를 따랐다(<표 25> 참조).

<표 25> 현장에 투입되어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준비정도

	F	%
전혀 그렇지 않다	3	5
그렇지 않다	23	37
그렇다	33	53
매우 그렇다	3	5
전체	62	100

본 연구의 <표 24>의 분석결과에서 ‘교사의 영어구사력’ ‘학생과 교사의 친근한 관계’ ‘시각적인 자료 및 동기유발 자료’ 등 영어수업 성패에 관련한 요소들은 다양하고 그 중요성에 있어서도 등가치하다고 볼 수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 설문 문항 21번을 통해 알아본 영어를 가르칠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고 보는 이유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29%가 영어 구사력의 부족을 들었다. 수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여러 요인들 중 ‘영어 구사력’에 대한 예비 교사의 부담이 크다고 인식 된다.

배두본(2000)에 따르면, 예비교사의 41%가 영어능력을, 31%가 교육자

인성을 영어교사가 갖추어야 할 필수요건으로 평가하고 있다. 교사의 인성보다 더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는 것은 영어능력이 영어교사의 자질로 얼마나 중요하게 각인 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표 30>의 분석 자료에서도 나타났듯이, 가장 중요한 자질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그 부담감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영어로 하는 영어수업(TEE) 기회를 늘린다거나, 영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적 환경을 제공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할 듯하다(<표 26> 참조).

<표 26> 영어를 가르칠 준비가 되지 않은 이유

	F	%
무응답	37	60
영어 구사력의 부족	18	29
다양한 교수방법에 관한 지식부족	7	11
전체	62	100

이상의 수업실습생의 수업실습에 대한 인식을 종합해보면, 교실 영어사용에 대한 실력이나, 자신감부족 등으로 영어수업 시연에 대한 만족도가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학교에 따라, 수업방법에 따라 영어사용 빈도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었다. 고등학교보다 중학교에서, 일방적 설명위주의 수업보다 모둠 활동위주의 수업에서 영어사용의 빈도가 더 높았다. 수업방법에 따라 질문의 빈도에 있어 차이가 있었는데 모둠 활동위주의 수업에서 질문의 빈도가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질문을 통하여 학습자의 수준을 인식하는 정도에 있어 고등학교보다 중학교에서 질문을 적절히 수업 시 활용하였다. 영어수업의 성패 요

인에 대해 ‘교사의 영어구사력’과 ‘학생과 교사의 관계’, ‘시각적 자료 및 동기유발 자료’의 비중이 높았으며, 고등학교보다 중학교에서 ‘학생과 교사의 관계’가 영어수업의 성패요인에 있어 더 높은 비중을 나타내었다. 영어수업 협의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낮았으며, 이는 지도교사의 지도시간이 너무 짧고 구체적이지 않음을 이유로 들고 있다. 영어구사력의 부족을 이유로 영어를 가르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응답자도 적지 않았다.

4.3 영어교과 수업실습의 개선방향

주 당 적당한 영어 수업 참관 횟수에 대해 ‘7~8회’가 54%로 가장 많았고, ‘5~6회’, ‘3~4회’, 기타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통 실습 3~4주차에 수업실습을 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응답자의 과반수가 전체실습 기간 동안 ‘14~16회’의 지도교사의 수업참관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결과치가 나왔다 (<표 27> 참조).

〈표 27〉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주 당 수업 참관 횟수

	F	%
3~4회	7	11
5~6회	14	23
7~8회	34	55
기타	7	11
전체	62	100

주 당 적당한 영어 수업 시연 횟수에 대해 ‘7~8회’가 48%로 가장 많았고, ‘5~6회’, ‘기타’, ‘3~4회’의 순으로 나타났다. 설문 문항 22번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응답자의 과반에 가까운 수가 전체실습 기간 동안 ‘14~16’회의 수업시연이 적절 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표 28> 참조).

<표 28>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주 당 수업 시연 횟수

	F	%
3~4회	7	11
5~6회	14	23
7~8회	30	48
기타	11	18
전체	62	100

실습학교에 바라는 강좌나 요구사항에 대해 ‘모범영어수업 공개횟수의 증가’가 37%로 가장 높았고, ‘영어교수방법에 관한 특강’, ‘자료제작방법 및 활용방법에 관한 연수’, ‘영어 학습 모형 및 수업활동 기술’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실습학교에서 모범영어수업 공개 횟수를 증가시키고 이론적 부분이 아닌 실제 영어수업을 하면서 필요로 하는 영어 표현이나, 수업진행에 있어 다양한 변수 등에 대한 특강을 해주길 바라고 있었다. 이는 영어교과 교육실습생들이 돌발적인 상황에 있어 수업외의 것들을 표현해야 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표 29> 참조).

<표 29> 실습학교에 바라는 강좌나 요구사항에 대한 분석

	F	%
영어 교수방법에 관한 특강	17	27
모범영어수업 공개횟수의 증가	23	37
자료제작방법 및 활용방법에 관한 연수	14	23
영어 학습모형 및 수업활동에 필요한 기술	8	13
전체	62	100

실습학교에 바라는 강좌나 요구사항에 대한 면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어모범수업 참관 기회가 많이 제공되었으면 좋겠어요. 영어수업을 해볼 기회를 많이 제공하고, 수업에 대한 팁을 제공해주면 좋겠어요. 지도교사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시간이 많으면 좋겠어요. (F1, 2012년 3월 3일)

다른 행정 실무적인 강좌 보다, 교과별로 수업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특강이 개설되었으면 좋겠다. 교과를 통합한 강좌가 대부분이었고 교과별로 지도교사가 특강을 해줬으면 좋겠다. (F2, 2012년 3월 10일)

원어민과의 상호작용, 원어민과의 팀티칭 수업 방법, 교실에서 쓰이는 영어, 수업기술 등에 대한 실제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 (F3, 2012년 3월 20일)

영어 수업 진행시 제약점에 대해 응답자의 41%가 ‘영어구사력의 부족’으로 응답했고 ‘학생들의 능동적 참여 결여’, ‘다양한 학습자료 및 기자재

부족', '원어민 선생님과 의사소통부족'의 순서로 나타났다(<표 30> 참조).

<표 30> 영어과 수업실습 진행시 제약점 분석

	F	%
다양한 학습자료 및 기자재 부족	13	21
학생들의 능동적 참여 결여	15	24
영어 구사력의 부족	26	42
원어민과 의사소통 부족	5	8
기타	3	5
전체	62	100

교육대학원의 교육과정에 바라는 강좌나 요구사항으로는 응답자의 48%가 '수업실연 기회를 제공하는 강좌를 늘렸으면 좋겠다', 40%가 '다양한 교수법을 소개하는 강좌를 늘렸으면 좋겠다', 6%의 응답자가 '영어회화강좌가 생겼으면 좋겠다'고 응답 했다. 교육대학원의 특성상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영어구사력은 단기일에 짧은 시간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를 위해 개인의 노력이 제일 중요하겠지만 현재의 교육대학원의 커리큘럼으로 대학원생들을 영어사용 환경에 좀 더 노출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표 31> 참조).

<표 31>교육대학원의 교육과정에 바라는 강좌나 요구사항

	F	%
영어회화강좌가 생겼으면 좋겠다	4	6
다양한 교수법을 소개하는 강좌를 늘렸으면 좋겠다	25	40
수업실연 기회를 제공하는 강좌를 늘렸으면 좋겠다	30	48
현 교육과정에 만족 한다	3	5
전체	62	100

이상의 영어교과 수업실습의 개선방향을 종합해보면, 수업실습이 이뤄지는 3, 4주차 동안 ‘14~16회’의 지도교사의 수업참관과 ‘14~16회’의 수업시연을 희망하였고, 실습학교에 대해 모범영어수업공개횟수의 증가, 영어교수 방법에 관한 특강을 희망하였다. 교사의 영어 구사력의 부족, 학생들의 능동적 참여 부족, 다양한 학습자료 및 기자재 부족함을 영어과 수업실습 진행의 제약점으로 들고 있었다. 교육대학원의 교육과정에 바라는 강좌나 요구사항으로는 수업실연기회를 제공하는 강좌, 다양한 교수법을 소개하는 강좌가 늘어나기를 희망하였으며, 영어회화강좌가 개설되기를 바라는 의견도 있었다.

V. 결론 및 제언

영어교과 수업실습의 실태와 실습생들의 인식, 영어교과 교육실습의 개선점 등을 알아보고자 2010년 또는 2011년도에 부산과 그 인근도시 내에 소재하는 중, 고등학교에서 4주의 교육실습을 한 실습생 62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내린 결론을 바탕으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실습 교육과정의 개선에 대한 예비교사들의 실제적 요구를 반영한 교육과정 및 교육실습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교육 대학원생들의 영어교과 교육실습 실태를 살펴본 결과, 실습기간이 적절하다고 인식하는 학생들이 많았지만, 실습기간을 늘리기를 바라는 의견을 보인 응답자들의 반응도 적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의견은 실시한 면담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교육실습에 대한 중요성을 예비교사들도 인식하고 있다는 것으로, 실습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 실습학교의 교육실습 프로그램이 학교에 따라 자체적으로 운영될 것이 아니라 좀 더 표준화된 실습 프로그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어떤 학교로 실습을 가든, 지도교사의 참관기회나, 수업시연 기회, 수업협회의 기회를 동등하게 제공받아야 한다. 교육실습 프로그램의 자체적 운영으로 인해 어떤 실습생은 적절한 기회를 제공받은 반면, 또 다른 실습생은 그렇지 못한 경우 등, 모든 실습생들이 제대로 경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의 개선이 요구된다. 예비 영어교사로서의 준비를 위해 실습학교에 바라는 강좌나 요구 사항에 대해서 많은 응답자들이 '모범영어수업 공개횟수의 증가'를 원했다. 실제 실습학교에서 이뤄지고 있는 강좌들은 수업외의 실무적인 업무

처리 관련 강좌들이 대부분이며 교과별 강좌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영어 교사는 꾸준히 발전하기를 요구받는 자리인데, 이들을 교육시키는 실습학교에서는 수년 째 같은 교육 프로그램으로 예비교사들을 지도하고 있다. 시대가 요구하는 영어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예비교사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여 발 빠르게 요구에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실습학교의 여러 담당 교사들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다.

둘째, 예비교사들의 영어구사력 및 자신감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 연구의 설문 결과를 보면서 많은 예비교사들의 가장 큰 부담은 바로 영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수업시연에 불만족스러웠던 이유, 영어를 가르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이유, 영어수업을 진행하는 데 제약점을 묻는 문항에서, 모두 하나 같이 영어구사력의 부재를 이유로 들고 있었다. 이에 교대원생들이 영어 환경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학교차원에서 교실영어 활용 훈련 및 회화능력 향상 프로그램의 개설, 영어수업을 시연하고 연습하는 기회를 꾸준히 교대원생에게 제공하면 좋을 것 같다. 하지만, 영어구사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의 노력의지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평소 교실영어 및 회화능력을 쌓도록 꾸준히 노력하여야 함은 당연한 전제조건이다.

예비교사들은 2년간 배운 내용을 최종적으로 적용, 자신을 스스로 시험하고 평가하는 자리를 가지게 된다. 바로 교육실습을 통해서이다. 최종단계인 교육실습은 예비교사 양성에 있어 매우 핵심적인 과정이고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본 연구는 교육 실습과 관련하여 여러 예비교사들의 목소리를 통해 현 교육실습의 위치를 되새겨 보고 개선사항에 대해 논의해 보았다. 본 논문이 교육실습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실습 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한 근거자료로 유용하게 활용 될 수 있길 바란다.

참고문헌

- 강경희. (2004). 교육실습에서 교실수업에 대한 과학교육전공 학생들의 고려사항. *한국교원교육연구*, 21(1), 105-131.
- 김경배. (1996). *교육실습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 김남순. (1999). *교육실습의 이론과 실제*. 서울: 교육문화사.
- 김덕기. (1987). 영어교육의 전문성. *영어교육*, 33(1), 143-148.
- 김자영. (2007). *중등학교 교육실습 프로그램의 성과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서울.
- 김정렬. (2007). *영어과 수업관찰과 분석*. 서울: 한국문화사.
- 남정걸. (1998). *교육실습의 이론과 실제*. 서울: 교육과학사.
- 박인옥. (2007). 중등 사회과 예비교사들의 교육실습에 관한 인식 조사. *시민교육연구*, 39(3), 185-212.
- 배두본. (2000). 영어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영어교육연구*, 12(1), 113-144.
- 서재복, 이정원. (2000). *교육실습의 이론과 실제*. 서울: 도서출판 학이당.
- 소경희. (2004). 특수교육 초등예비교사들의 교육실습 경험 분석. *특수교육: 이론과 실천*, 5(4), 469-490.
- 양민아. (2003). *중등교원의 양성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서울.
- 이건인. (2006). 사범대학 교육과정 및 교육실습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 *교육연구*, 25, 323-345.
- 이경희. (2005). 교육실습의 내용과 환경 분석. *교육발전 연구*, 22(1), 117-152.

- 이지연, 손희권. (2005). *교육실습의 이해와 실천*. 서울: 서현사.
- 정경애. (2011). *교대생들의 영어교과 교육실습에 관한 인식 및 실태조사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인교육대학교, 인천.
- 정영근. (2004). *예비교사를 위한 교육실습의 이론과 실천*. 서울: 문음사.
- 정원주. (2006). *중학교 교사와 학생의 교육실습 운영에 관한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석사학위논문, 경상대학교, 경남.
- 정진아. (2001). *영어교사 양성과정에 대한 예비교사와 현직교사의 인식도 및 만족도 분석*.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서울.
- 조석훈. (2004). 교육실습생의 교직경험에 관한 질적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22(1), 201-224.
- 천은숙. (1995). *교육실습을 통한 교사사회화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서울.
- 최진황. (2001). *영어교육학 신문*. 서울: 문음사.
- 한상호, 유평수. (2003). *교육실습의 이론과 실제*. 서울: 교육과학사.
- 허창수. (2007). 교육지식을 재구성하는 장으로서 교육실습: 다섯 수업실습생 경험을 중심으로. *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25(1), 95-127.
- 황윤한. (2007). 교육대학 교육실습 개선을 위한 실천 방안: 광주교대를 중심으로. *초등교육연구*, 20(1), 301-326.
- Brown, H. D. (2007).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New York: Pearson.
- Clement, M. (2002). What cooperating teachers are teaching student teachers about classroom management. *The Teacher Education*, 38(1), 47-62.

Lange, D. L. (1993). Teacher development certification in foreign language: Where is the future? *The Modern Language Journal*, 67(4), 374-381.

Wallace, M. J. (1994). *Training foreign language teachers: A reflective approac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Darling-Hammond, L., Wise, A. E., & Klein, S. P. (1999). *A license to teach: Building a profession for 21-century schools*. Boulder, CO: Westview Pr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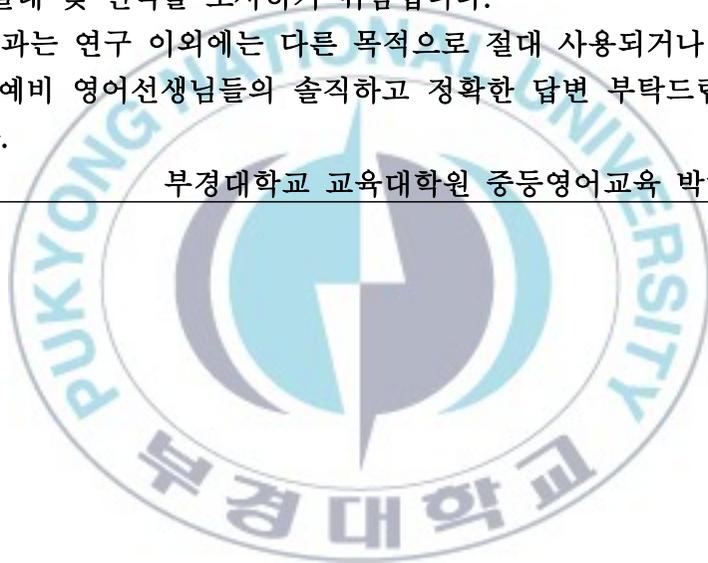
부 록

1. 설문지

본 설문지는 예비영어교사로서의 영어 교과 교육봉사활동에 관한 전반적인 실태 및 인식을 조사하기 위함입니다.

조사결과는 연구 이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거나 공개되지 않으니, 예비 영어선생님들의 솔직하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중등영어교육 박혜숙 드림



기초자료

1.나이:

2.참여하였던 실습학교와 학년:

실습실태 조사

해당란에 숫자를 기입해 주십시오.

1. 지도교사 수업의 참관 횟수 ()회
2. 동료교생 수업의 참관 횟수 ()회
3. 자신에게 주어진 수업시연 횟수 ()회

4 전체 실습내용 중 각각의 요소를 %로 환산하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 수업실습관련 내용()%
- 생활지도관련 내용()%
- 학사업무관련 내용()%
- 학급관리보조업무 관련 내용 ()%
- 기타()%
- 내용 전체 100%

5. 실습기간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너무 짧다 ② 짧은 편이다 ③ 적절하다 ④ 긴 편이다 ⑤ 너무 길다.

6. 교육실습학교에 배정된 실습생 수는 적당하였습니까? ()

- ① 너무 적다 ② 적은 편이다 ③ 적당하다 ④ 많은 편이다 ⑤ 너무 많다

7. 교육실습 기간 중 지도교사의 수업참관 기회는 적절히 제공되었습니까? ()

- ① 너무 적다 ② 적은 편이다 ③ 적절하다 ④ 많은 편이다 ⑤ 너무 많다

8. 교육실습 기간 중 동료교생수업의 참관 기회가 적절히 제공되었습니까? ()

- ① 너무 적다 ② 적은 편이다 ③ 적절하다 ④ 많은 편이다 ⑤ 너무 많다

9. 교육실습 기간 중 수업시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적절하였습니까? ()

- ① 너무 적다 ② 적은 편이다 ③ 적절하다 ④ 많은 편이다 ⑤ 너무 많다

영어교과 교육실습생의 수업에 대한 인식

10. 본인의 영어수업 시연에 만족하십니까? ()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11.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

(10번에 ①,②번에 체크하신분만 하시기 바랍니다.)

- ① 교실영어 사용을 잘못해서
② 학생들의 참여와 적극적인 대답이 적어서
③ 학생 통제가 잘 안돼서
④ 시간 분배를 잘하지 못해서
⑤ 학습 자료와 기자재 사용이 서툴러서
⑥ 준비한 학습활동 내용이 미흡해서
⑦ 수업시간에 긴장이 되어서

12. 본인의 수업방법은 어떤 방법이었습니다? ()

- ① 일방적 강의식 설명위주 ② 모둠 활동위주

13. 수업에서 영어사용 정도는 얼마나 됩니까? ()

- ① 0~20% ② 20~40% ③ 40~60% ④ 60~80% ⑤ 80~100%

14. 본인의 영어수업이 가능한 재미있는 수업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까? ()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15. 수업 중에 학생들에게 질문을 자주하여 대답할 기회를 주었습니까? ()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16. 영어수업의 성패는 무엇과 가장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

- ① 교사의 영어구사력
② 학생들과 교사의 친근한 관계
③ 학생들의 영어수준에 대한 이해
④ 시각적인 자료 및 동기유발 자료
⑤ 교사의 활기찬 수업진행방식

17. 영어수업 시연 후 수업협회가 있습니까? ()

- ① 있다 ② 없다

18. 영어수업 시연 후 이루어진 수업협의를 만족하십니까? ()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19. 만일 수업협의를 만족스럽지 못하였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

(13번에 ①,②번에 체크하신분만 하시기 바랍니다.)

- ① 잘한다고만 하고 구체적인 진술이 없어서
② 지도교사의 지도가 납득할 만하지 못해서
③ 지도교사의 수업가치관이 나와는 달라서
④ 지도교사의 지도시간이 너무 짧아서
⑤ 개선점의 언급이 없어서

20. 영어를 교육시킬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21. 영어를 가르칠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

(20번에①,②번에 체크하신분만 하시기 바랍니다.)

- ① 영어 구사력의 부족
② 다양한 교수방법에 관한 지식부족
③ 학생 수의 과다와 시간부족
④ 다양한 학습자료 및 기자재 부족
⑤ 교육과정의 이해부족

영어 수업실습의 개선방향 조사

22. 실습기간 중 지도교사의 영어수업 참관은 주 당 어느 정도가 알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1~2회 ② 3~4회 ③ 5~6회 ④ 7~8회 ⑤기타

23. 실습기간 중 영어수업 시연 횟수는 주 당 어느 정도가 알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1~2회 ② 3~4회 ③ 5~6회 ④ 7~8회 ⑤기타

24. 예비 영어교사로서의 준비를 위해 실습학교에 바라는 강좌나 요구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

- ① 영어 교수방법에 관한 특강
② 모범영어수업 공개횟수의 증가
③ 학생들의 영어수준 이해에 관한 특강
④ 자료제작방법 및 활용방법에 관한 연수
⑤ 영어 학습모형 및 수업활동에 필요한 기술

25. 영어과 수업실습을 진행하는데 있어 제약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 ① 영어 구사력의 부족
② 학생들의 능동적 참여 결여
③ 다양한 학습자료 및 기자재 부족
④ 원어민선생님과의 의사소통 부족
⑤ 기타

26. 영어수업을 위해 실습생들이 실습 전 대학원의 교육과정에서 미리준비하거나 연습해야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

- ① 현 교육과정에 만족한다.
- ② 다양한 교수법을 소개하는 강좌를 늘렸으면 좋겠다.
- ③ 수업실연 기회를 제공하는 강좌를 늘렸으면 좋겠다.
- ④ 영어회화 강좌가 생겼으면 좋겠다.
- ⑤ 기타

27. 영어교육관련 수업실습이 나아가야할방향이나 제안 할 것이 있으면 간단히 써주십시오.

